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월 14일(주일) 제1475호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성희 선교사

“선교가 곧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1월 13~14일 '2024년 선교헌금 2차 작성' 선교헌금작성서, 온라인 작성서, 전화 참여

온누리교회가 새해 선교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 2024년 선교헌금 그 두 번째 작정을 1월 13일(토)과 14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에서 실시한다. 2024년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02-3215-3616)로 참여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할 때는 '자동이체(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감 및 해지는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이체로 선교헌금

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 연장된다. 자동이체 날짜는 매월 25일이다. 헌금봉투로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은 선교헌금 작성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작정한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60.6%(77억), 선교사역비 17.2%(22억), 기관 지원 8.6%(11억), 시설운영비 9%(11억5천), 행정운영비 4.5%(5억7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헌금은 134억 원(13,436,053,261원) 봉헌했다. 선교사 후원(54.3%), 선교사역비(19.4%), 기관 지원(13.8%), 시설운

영비(8.6%), 행정운영비(4%) 등으로 지출했다.

온누리교회는 현재까지 73개국에 선교사 870명을 파송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 목요열방예배,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등에서 선교지 소식을 공유하고,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일주일!

월~토요일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2월 11일(월) 시작한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1월 20일(토)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도 참여할 수 있다.

2023-2024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 주제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15일 '다시 찾는 기쁨' (눅 15:31-32), 16일 '사람을 낚는 어부들' (마 4:18-20), 17일 '생명을 나누는 잔치' (눅 5:27-32), 18일 '보낸 받은 사람들' (요 20:19-23), 19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눅 24:46-49), 20일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마 28:16-20)을 주제로 설교한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이어지고 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및 한 줄 소감은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와 함께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 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서빙고온누리교회 행정지원실에 가져다주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료를 스캔한 다음 원본 그대로 돌려준다.

문의: 02-6959-0001(온누리신문)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24년 온누리교회 조직도'가 1월 14일(일) 오후 5시 이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 게재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사도행전>에서 그 방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풍부한 재물도 없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을 소개할 도구도 없었던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그 소수의 미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불과 200년 만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공동체로 존재했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영향력이 미미했던 소수의 사람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세력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한 사업을 행함으로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역사에서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행만으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기적 공동체로 만든 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전했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정체성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집중적인 교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3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파송 받은 대사가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낸 본국의 정책과 의견을 전달할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제국에 보냄을 받은 대사관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보냄을 받은 이 시대 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포스트모던’, ‘탈근대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이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입니다. 이 사상과 문화가 복음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해방’,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세상을 세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쓸 때 절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성경을 부정하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교 지역, 핍박이 있는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풍족한 서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에 절망하고, 세상의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로마 제국에 있었던 변화와 동일한 유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주후 3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증가하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자유롭고 풍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제국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휩쓸리고, 세상에서 결핍과 고난, 아픔과 상처, 시련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A.D. 308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메시아가 다시 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법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대사관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한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4~5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기다리며 40여 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 하셨으니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며칠은 10일 정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기에 이때부터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 “약속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약속하신 예언을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오랜 교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들은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듯 성령 안에 잠겨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의 조건입니다. 성령 세례가 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 증인된 삶의 조건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증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뛰어넘는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성령의 임재, 오심, 부어주심과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6절).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제자들의 질문이 다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회복하다’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했고, ‘지금입니까?’는 당장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여전히 편협한 선민의식,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의 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 다방향, 다중심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있고, 유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땅끝’은 모든 세계의 지

명을 모두 쓸 수 없기에 사용한 표현입니다. 지리적,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땅끝이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땅끝입니다. 성령 받은 증인들은 온 세계에 있는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된 교회인이 아닌가는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땅끝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보면 됩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위임목사가 되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 메시지 중에 잊히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앓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땅끝으로 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앓는 좌석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온 누리교회에서 사역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어느 목사님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가 찾아와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담임으로 오시는 분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저는 세 가지가 너무 싫습니다. 첫째, ‘땅끝’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반복해서 듣기가 싫습니다. 둘째, ‘차세대’입니다. 우리 같은 올드(old) 세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맨날 차세대에만 예산을 더 주는 건 싫습니다. 셋째, 새가족입니다. 담임목사님들은 새가족만 오면 맨발로 뛰어가는데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섬섬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진짜냐?”고 물었더니 진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들고, 차세대가 거부감이 들고, 새신자가 거부감이 드는 교회를 꿈꾼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귀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새가족 많이 오는 게 싫습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앓을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전도를 강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땅끝’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음세대도 또 하나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타민족에게 가는 것이 수평적 미션이라면,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직적 선교입니다. 우리 다음세대는 완전히 타문화권입니다. 다음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썼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서도 문자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타문화권이자 땅끝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종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성령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11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

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터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령관이 용감하게 최전방에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레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후방으로 물러서서 전쟁 전체를 지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군사령관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앞에 있어도 패배할 수 있고, 가장 뒤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떠나가심으로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기간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선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는 전도와 선교가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원토록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원한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 이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의무 이상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다양성

성경은 창조 질서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다양한 종류를 창조하셨다. 같은 종류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생명체가 나오도록 창조의 규칙을 세워 두셨다. 수십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똑같이 태어나지 않게 설계하신 방법이 유전의 원리다. 생물의 세포분열에는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분열이 있다. 생식세포분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정보가 감수분열 중에 염색체 교차(cross-over) 과정을 통해 두 분의 유전정보가 섞여서 아버지의 정자가 생성된다. 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유전정보 역시 교차를 통해 섞여서 어머니의 난자가 생성된다. 유전자의 뒤섞임으로 인해 아무리 많은 난자가 생성되어도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진 것이 생길 수 없고, 정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각 부모의 독특한 정보가 조합된 정자와 난자가 만나 더 독특한 수정란이 생성되고, 이들이 성장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종’이라는 통일성 속에서 각 개체가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하나의 수정란은 체세포분열을 통해 숫자를 증식시킨다. 생식세포 분열과 달리 체세포분열로 생성된 인체의 모든 세포는 수정란과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체 각 부분을 구성하는 세포들, 즉 뇌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등은 그 형태도 기능도 다르다. 한 개체의 모든 세포는 유전적으로는 통일성을 보이지만, 후성유전적 조절을 통해 서로 발현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생성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은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전 12장).

다시 말해, 통일성 없는 다양성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통일성이 없으면 분쟁과 혼돈, 파열이 발생한다. 반면 다양성 없는 통일성 역시 문제가 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말씀처럼, 하나의 지체만으로 구성된 이상한 생명체가 될 것이다.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을 요구하고, 이는 한 생명체 혹은 한 사회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

사회정의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사람들은 DEI, 즉 다양성(Diversity), 평등(Equality), 포용(Inclusion)을 마치 주문처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의 이념에서는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획일성을 강요한다. 그들이 존중하는 다양성의 가치는 자신들이 말하는 몇 개의 집단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 범위 밖 집단의 가치는 강력하게 억제된다. 결국 사회정의의 이념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더구나 이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은 그들이 지정한 집단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이념에는 인간 개인의 자율성이 있을 자리가 없다. 집단 속의 개인은 그 집단의 일부일 뿐이며, 집단에 부여된 역할에 맞춰 생각하도록 강요당한다. 이 이념은 흑인은 흑인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성 소수자는 성 소수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요한다.

흑인 여성으로 미시간주 하원의원인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는 “우리는 흑인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흑인 얼굴들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슬렘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성 소수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은 각 소속 집단에 규정된 입장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흑인, 모슬렘, 여성, 성 소수자는 더이상 필요 없으니 그 집단에 지정된 요구에 순응하든지 떠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의 입장과 목소리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결국 ‘약자의 권의 보호가 최고의 가치’라고 규정하는 사회정의의 이념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 이념의 핵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그 집단으로부터 비난받고, 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획일화된 이념으로 억압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다. 맥길대학 원로 교수 칼 살즈만은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능력이 아니라 소수집단 소속 여부로 로스쿨이나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교수나 회사의 관리직, 국회의원, 장관으로 선출된다.”

이 소수집단의 반대편에 있는 백인, 남성, 이성애자, 개신교도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당한다. 이와 같은 사회정의의 이념을 강요하는 집단들이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조성한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빌 게이츠 같은 백만장자나 구글과 같은 기업, 명문대학들조차 앞다퉈 사회정의의 이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기이한 현상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필경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잠 11:19) 깊이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바라봄과 하나님의 형상

유현목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19세기 초 백인이 호주로 이주했을 때 원주민을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동물로 취급했다. 아이는 잡아 노예로, 여자는 성노예로 부리고, 남자는 짐승처럼 사냥했다. 먼 옛날 일이 아니다. 사람을 태워죽이고, 목을 자르고, 어린 소녀를 납치해 노리개로 삼는다는 뉴스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 안에 악마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이다.

세계관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포괄적 틀’이다. 그 가운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관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세계, 타인 그리고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틀이 있어야 한다.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관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할 때 현상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만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남자는 흙으로 빚은 다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만드셨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나는 망가져 버린 인간 안에 빛나는 보석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반영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비취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인간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다. 비록 그가 타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손상되었을지라도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한 조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작품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중풍 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죄의 바이러스가 영혼을 병들게 해 파괴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백선처럼 감춰진 죄를 무력화시키고, 감추어진 조각을 회복시킨다. 이로써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까지 높이려고 했다. 21세기 시장 경제는 엄청난 자본을 쌓아 도시의 번영을 가져왔다. 유토피아를 약속했던 과학기술문명은 오존층 파괴, 이상 기온, 해수면 상승, 대기 오염을 가져왔다. 인류는 양극화, 물과 식량 고갈, 핵전쟁, 전염병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기주의에 빠진 인간은 움켜쥔 손을 놓지 못한 채 여전히 탐욕을 쫓고 있고, 인류는 기관사 없는 기차처럼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맹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개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순자는 예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해결책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천사가 될 가능성과 악마가 될 위험성을 소유한 이중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다. 중생(衆生)을 통해 거듭날 때 인간은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악의 평범성(Banalität des Bösen)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가학적으로 변해 양심이 마비되고, 희생양들은 저항하지 못한 채 신경쇠약과 운명의 노예가 되고 만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다. 나는 망가져 버린 인간 안에 빛나는 보석을 보고 있는가?

2024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1. 난민 선교

“난민 선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리아 난민과 레바논을 위한 기도와 후원 절실

1월 13일(토)과 14일(일) 2024년 그 두 번째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기도, 후원, 재능기부 등 어떤 형태로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자 비전이다. ‘가든지 보내든지’가 온누리교회 선교의 큰 물줄기이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온누리교회 선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비상한다. 특히 난민 선교에 집중한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이하 TIM) 한총회 목사가 난민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 기회의 땅이 된 레바논의 영적 상황 등을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온누리교회가 올해 창립 39주년을 맞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는 온누리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며,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A Bold Witness for Christ)’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 28장 31절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문득 2023년 1월 라뚜갈러 교회에서 맞은 첫 새벽에 느꼈던 울컥함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스리랑카 국가 부도가 이어지면서 현지에서 이동이 어려워 3년 정도 사역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부터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뚜갈러 교회 사모님과 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사역지에 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구나. 사역지에 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언제 다시 사역지에 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울컥함과 다짐을 기억하며 사역했는데 어느새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 주 3~4일 정도 라뚜갈러

선교와 난민 사역

선교는 지역과 대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대 선교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난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난민 선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난민을 돌보고,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그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TIM 설립 30주년을 맞아 소속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TIM의 선교 성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복수 응답 가능), 지금까지 TIM의 주요 사역이 ‘제자양육’(63%), ‘교회개척’(56%), ‘교육사역’(44%), ‘가정/셀러치’(35%), ‘여성/아동’(20%), ‘난민/이주민’(15%), ‘개발사역’(13%), ‘비즈니스’(12%), ‘신학교’(7%) 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TIM 선교사들이 뽑은 30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개인의 인격과 영적 성장’, ‘교회 세우고 예배 세워진 일’, ‘현지인 제자양육, 리더 훈련, 지도자 양성’, ‘많은 선교사 파송 및 차세대 선교’, ‘난민들 섬기고 예배 세운 일’,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역 연결’ 등이었습니다.

TIM 향후 30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TIM의 바람직한 선교 정책 방향과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교사님들이 ‘시대적, 세계적 변화에 맞는 전략적 유연함과 발 빠른 대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융통성’, ‘현지인 중심 사역 전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초점’,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한 선교의 효율과 참여율 증진’, ‘이주민 및 난민 사역 집중’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겹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난민이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속수무책, 난공불락의 땅에서 전도 기회의 땅이 된 ‘레바논’

지난해 TIM이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함께 레바논 난민촌에서 ‘난민전도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레바논 난민촌에는 내전을 피해 나온 시리아 국민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접 국가인 레바논, 요르단, 튀르키예, 이라크 등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시리아는 이슬람주의 국가입니다. 이슬람 종교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선교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리아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고,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사 한 사람을 회심시켜도 그 전도대상자는 자신의 가정이나 사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외로 이주해야 합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시리아는 속수무책, 난공불락의 땅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으로 그 나라 국민이 인

접 국가로 피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레바논은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그야말로 ‘이슬람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터치(No Touch)’였던 땅이 이제는 ‘전도의 노다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속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복음임을 처음으로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하나둘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후원이 절실합니다.

난민 사역은 시대적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리아 난민들과 레바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레바논 난민촌에 ‘자립형 교육 예배 공동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육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자립해서 또 한 명의 복음의 증인을 세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총회 목사
(두란노국제선교회(TIM) 본부장)

다름에서 같음으로!

을 전할 때 제 마음가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뜨개교실에 참석하는 7명 중에서 사모님을 제외한 6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마을 여성들입니다. 오래전에는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지금은 불교로 돌아갔거나 개종하지 않았어도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모임에서 오디오 성경 한 장씩 들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가끔 쉬운 질문을 만들어서 성경을 잘 듣고 대답하도록 유도하는데 꽤 재미있어합니다. 6명의 여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광명공동체가 담당공동체로서 선교지와 선

교사를 위해 늘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며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 부부와도 만나서 사역과 생활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격려가 되고, 기쁨이 큼니다. 선교를 향한 동역이 지속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뚜갈러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일독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라뚜갈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성희 선교사(스리랑카)

맛있는 말씀 해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행 2:37)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자 복음이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베드로의 설교(행 2:36)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또는 화가 치밀어 올라, 행 7:54), 그들은 도리어 스테반을 죽여버렸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삶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소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알려야 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은 그저 새롭고 이상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행 17:20~21).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설명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재하시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전했다(행 17:24-25). 또한 인간은 모두 한 혈통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했다(행 17:26, 29). 복음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인간을 차별하는 계급사회의 죄악을 날카롭게 드러낸 것이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증거임을 알려주었다.

복음은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대다수는 복음을 외면하거나 전도자를 탄압한다. 진리의 복음을 따라 변화하기 싫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더욱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강력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고, 창조주 하나님은 종교적 주장에 불과한 거짓이라고 배우고 있다. 사람은 별뿔별의 후예라고 학생들에게 그럴듯하게 가르치지만, 결국 물질로부터 온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DNA를 전달하는 도구이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생충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의 죄악, 특히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죄악을 드러낸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 대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이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 마약과 성적 중독과 쾌락, 약자가 정의의기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진보 이데올로기 등이 현대인의 우상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대한 영향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까지 거부하고 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 대신 쾌락과 이익, 이데올로기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녀가 출생하고 양육되는 사회의 기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 행세를 하고, 죄를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인다. 게다가 교회에도 세상과 똑같은 죄악이 만연하고 있으니 부끄러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놓을 수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한다.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돌이켜 복음의 진리를 좇아 살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청년, 중독자와 동성애자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리고 변성하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복음이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다시 찌르고 변화시킬 때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새해에는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아들의 권능과 공휼

1월 15~21일
〈마가복음〉 6:14~8:13



목상포인트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 치유, 귀신을 내쫓음,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등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무리의 추종을 받으심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사명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왕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겨 두려워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에도 많은 무리가 따르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떡(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거센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목상포인트 2: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 마음의 근원에 깊이 숨겨진 죄성은 인간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어떠한지 살피고, 성령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내면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며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등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등이 사람을 더럽힌다.

목상포인트 3: 성도는 응답되지 않는 듯한 기도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때로 믿음과 겸손을 테스트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휼은 끝이 없으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인지, 연약한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공휼을 묵상하십시오.

▶한 이방 여인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달

라며 예수님 발아래 엎드린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겸손히 구한다.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 주시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무리가 이 일을 널리 전파한다.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는데, 약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신다.

- 묵상을 위한 가이드

▶헤롯의 경솔한 맹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왔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내가 멈추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키자.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공휼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공휼히 여길 지체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 주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속 악의 목록 중에서 내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버릴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십시오. ▶표적을 따르는 삶과 말씀을 따르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응답이 더더욱 끝까지 간구할 기도제목

을 적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N자매와 그 가정을 위해서!

안산M센터 아람어예배 소속 N자매를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N자매는 2021년 남편과 함께 알제리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N자매는 아직 무슬림이지만, 아람어 예배에 출석하면서 안산M센터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N자매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남편이 N자매와 함께 아람어예배에 나와서 형제자매와 교제하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주시고요.

알제리에 계신 N자매의 어머니가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어머니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됨을 경험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N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그 가정구성원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 김예달 전도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

은혜와 도전, 행복한 추억과 기쁨이 선물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이 있다.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이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차세대 가정이 그 주인공이다. 부모님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차세대 가정에 출석 도장을 찍어주는데, 은혜도 함께 채워지고 있다.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와 도전, 행복한 추억과 기쁨을 선물 받는 새벽을 깨우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조하이 학생(초등1부)은 새벽기도회(이하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게 정말 좋아서 친구도 데려왔다. 친구와 함께 출석 도장을 받으러 가는 얼굴에 벌써 천국이 임했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게 정말 좋아서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친구와 함께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출석 도장도 받고, 예배드리니까 더 행복해요.”

그 친구가 남연희 학생(초등1부)이다. 친구 따라서 난생처음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새벽마다 출석 도장 받는 게 익숙하고, 즐겁다.

“친구 따라서 새벽기도회에 왔어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오는 게 무척 재밌어요. 끝까지 나와서 출석 도장을 다 받을 거예요.”

송지은 성도(가정사역공동체)는 두 아이와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려고 온 새벽기도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

“첫째 아이가 새벽기도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다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새벽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게 어려울 거로 생각

했는데, 정말 즐겁게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오히려 제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영삼, 송남행 성도 부부(한강공동체)의 아이들도 열정적으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먼저 일어나 부모를 깨울 정도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도전을 받고 있다.

“저희 가정이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줍니다. 아이들이 새벽기도회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우 성도(한강공동체)는 자녀에게도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회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한 성도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다.

마냥 행복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새벽에 교회에 갔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와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의 행복한 추억을 자녀에게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석 도장 찍는 재미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번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지선 성도(이촌공동체)는 매일 새벽 가족과 함께 걸어서 교회에 온다. 길이 어둡고 좁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기쁘고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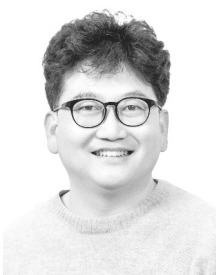
“아이들이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

니다. 매일 새벽 온 가족이 함께 걸어서 교회에 오는데 그 길이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길부터가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박서인 학생(파워웨이브3부)은 새벽기도회 완주가 목표다. 그만큼 새벽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더 자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 완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것도 상쾌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목회칼럼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교회에서는 ‘차세대’라 부른다. 계재광 박사(교회리더십 연구자)는 이들에 대한 특징 중 하나를 ‘자신의 정체성 갈구’라고 했다. 겉으로 드러내며 외치는 않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나는 누구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위해서 경험을 쌓고, 다양한 곳에 참여한다. 하지만 뽀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방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차세대가 기성세대가 되고, 교회를 이룬다면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교회는 그

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 줄 수 있을까? ‘새벽기도회’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건네 보고자 한다. 1908년 평양 대부흥 이후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새벽기도회다. 그때는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마다 특별한 기간을 마련해서 새벽기도회를 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부흥회나 사경회 전후로 받은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갈망,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한 영혼 구원, 신유에 대한 소망이었다. 새벽기도회는 기대를 품은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다양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시작했다. 새벽기도회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자랑이자, 부흥과 성장의 기초였다. 무엇보다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의 큰 바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새벽기도회의 하이터치

첫째, 열심이 있고, 열심을 내는 부모가 우선이다. 새벽을 깨우며, 아이를 챙기는 일이 없다면 차세대는 결코 새벽기도회로 연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신앙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새벽기도회의 연결은 부모의 수고와 애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가르친 대로가 아닌 보여주는 대로 배우는 차세대는 열심 있는 부모의 깨움과 챙김을 통해 신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디딤돌을 얻게 될 것이다. 효과와 열매로 말하는 시대에 맞게 참여와 경험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차세대는 이성 과 질서의 관심보다 관계와 상호작용에 훨씬 관심 있다.

둘째,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벽기도회에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을 보여주듯 졸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졸면서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와 복음과 관계를 맺으며 새벽기도회를 통해 상호작용 중임을 명심하자.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과정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단순 경험을 넘어 하나의 의식으로 남을

것이다. 부모님과 추억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다. 참여와 경험, 추억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차세대는 디지털 사회에서 공감받는 ‘디지털 감수성(DEQ)’이 높고, 공감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공감은 곧 인정이며, 인정욕구가 어느 세대보다 높다. 공감과 인정을 위한 바탕이 곧 정체성이며, 정체성을 위해 자신을 개방해서 경험하고, 참여하고,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한다. 차세대는 하이테크 시대에 살면서 하이터치를 갈망하고 있다.

셋째, 새벽기도회가 바로 하이터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활용하자. 졸고 있다고 축복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다. 품에 안고 있든, 옆자리에 있든, 몸에 손을 얹고, 안고 강렬하게 기도해 주자.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축복하기를 바란다. 새벽기도회의 하이터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 1월 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의 도전

〈마태복음〉 13:31~33

김상수 목사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본질보다 크게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성공하고, 크기, 숫자, 세력, 힘을 강조하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크기와 성장, 힘의 논리라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왜 성장하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으며, 도리어 박해와 환란,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 같은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 과장, 역설, 모순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운동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크기나 세력, 힘과 어떤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크고 우람한 나무와 같은 엄청난 운동력으로 발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보이지 않는 영역,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속성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십니다. 소량의 이스트를 발효시키면 처음에는 볼품없고 초라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풀어 올라 엄청난 크기의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비밀성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필연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자기희생입니다. 썩어 없어지고 존재가 사라져야 ‘축매적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효모가 없어져야 주변 세계를 부풀립니다. 겨자씨도 밀알이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힘과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를 변혁시키고, 전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1월 8일 월요일

순종을 통한 축복

〈요한복음〉 9:1~7

박종길 목사

〈요한복음〉 9장 1~7절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눈먼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묻

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셋째, 순종이 기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눈먼 사람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더 보지 못하게 눈에 진흙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눈먼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기

적을 이룬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실로암이 기적을 일으키는 생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보지 못한 채로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을 통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 1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순종

〈사도행전〉 4:18~29

박철웅 목사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산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선택 싸움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붙드는 담대한 용기는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세상에서는 협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그 협박에 굴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둘째, 자신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힘으로 대응합니다. 지금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

되고 담대하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협박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은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담대히 믿음의 고백이자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요한은 몰라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한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이상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교회가 함께 담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도들이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모든 성도가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도공동체가 되십시오.

◆ 1월 10일 수요일

순종을 위한 담대함

〈여호수아〉 1:6~9

강부호 목사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할 이 유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면 큰 임무를 수행할 때 형통의 길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다음은 임무를 수행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

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구약의 ‘담대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분명하게’라는 번역이 ‘담대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고, 공공연하게 밝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함은 혼자 묵상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이시고, 그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명백해지면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담대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충만하게 하시는 경험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의 담대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담대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은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확신할 때 내면이 진동할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담대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고, 변화의 핵심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 1월 11일 목요일

담대한 순종, 보리빵이 칼이 되다

〈사사기〉 7:13~18

도육환 목사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못한 기드온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야간 경비를 서는 두 군인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굴러와 미디안 막사를 덮쳤고, 미디안의 모든 부대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13절).

놀라운 것은 다른 병사의 해몽입니다. 이 병사가 해몽하기로는 “그 보리빵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막사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14절).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기드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막사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선포합니다(15절).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전투 장비는 나팔과 횃불, 빈 항아리였습니다(16절). 전쟁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기드온이 먼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사들에게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고 선포합니다(17절). 저는 이 시대에 앞서서 목소리 높일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진정한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드온에게 무슨 용사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 내놓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 앞에 기드온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용사다.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2일 금요일

무명의 선교사들

〈스가랴〉 8:22~23

노규석 목사

온누리교회는 30년 전부터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이주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선교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

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주민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23절에서는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열 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웃자락을 꼭 붙잡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 달라고 붙잡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는 이주민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주민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누리M센터에 계시는 외국인 목사님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청년들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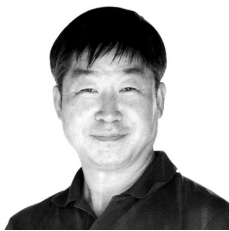
나아가는 무명의 선교사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 선교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주민들에게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될 때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선교가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주민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드러날 때 이주민들이 예수님의 제자, 무명의 선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한국의 안디옥교회 '홍의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홍의마을에 사는 마을 훈장 박능일이 교산리에 사는 친구 김상임을 찾았다. 둘은 오랜 벗이자 동지였다. 출세(出世)를 위한 과거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두고

밤을 새워 함께 고민했다. 그랬던 친구가 서양 오랑캐 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되돌려 놓을 심산으로 씩씩거리며 찾아갔다. 그런데 김상임에게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그도 개종했다. 민족을 구할 방도라면 마다할 것이 없었다.

박능일은 홍의마을로 돌아와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고, '홍의교회'를 설립했다. 이때가 1896년이다. 1년 만에 성도 수가 80명으로 늘었다. 선교사 도움 없이도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조직을 만들었다. 자립교회의 전형을 홍의교회가 보여줬다. 홍의교회 성도들은 끈끈한 신앙공동체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갔다. 홍의교회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줬고, 한국적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다.

첫째, 검은 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 죽

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뜻이다.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검은 옷을 입었다. 흰옷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금방 때를 타서 위생적이지 못했다.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선택했다.

둘째, 돌림자를 썼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겐 이름을 지어 주듯이,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니까 돌림자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교회를 시작한 7명이 한 일(一)을 돌림자로 쓰기로 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한날한시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능(能: 능력), 신(信: 믿음), 경(敬: 경외), 봉(奉: 받들다), 순(純: 순종), 천(天: 하늘), 광(光: 빛) 등 글자를 적은 종이를 자루에 넣고 하나씩 뽑아서 이름을 정했다. 성 씨(氏)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명했다. 새로 거듭난 의미를 한국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홍의교회 돌림자 문화는 한국 고유의 문화에 서양 기독교를 접목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방법으로 한국적인 시도를 했고, 토

착화에 성공한 경우라 하겠다.

서울이 바울이 되어 불꽃 같은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꾼 홍의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개명은 홍의교회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마다 개명이 이어졌다. 강화도 교회 전체가 돌림자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한국적 전통에서 같은 돌림자는 형제간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날짜는 부자지간, 할아버지와 손자, 숙질간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강화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들을 검은 옷을 입은 개라는 뜻으로 '검정 개'라고 불렀다. 아비와 자식이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은 개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이다.

셋째, 배운 것을 실천했다. 종순일은 성경을 읽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종순일은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주일예배를 드리고 자신에게 빛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빛문을 불살랐다.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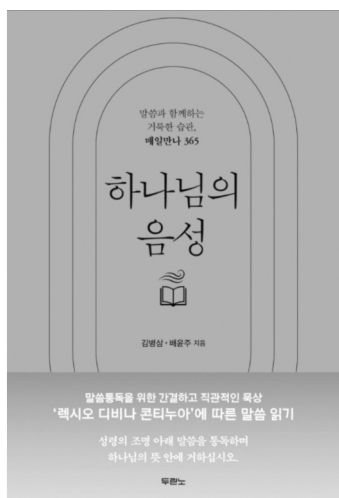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와다. 내

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빛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백 데나리온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 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성도가 되었다. 종순일은 천국 소망을 품었다. 이 땅의 부기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순일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마 19:21)는 말씀을 읽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리고 교회에 헌납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했다. 그는 실로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는 구절을 읽고는 부인과 함께 강화도에 떨어진 작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했다. 부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홍의교회 권신일은 교통도로 떠났고, 박능일은 강화 읍내에서 전도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홍의교회는 '한국의 안디옥교회'라는 별명이 생겼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를 곳곳에 보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란노 신간

말씀 안에서 맞이하는 새해!



《하나님의 음성》
김병삼, 배운주 저 | 두란노 |
25,000원

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성경통독뿐만 아니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 글도 함께 있다. 특히 '하루의 쉼'에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는 '53주 소그룹 나눔'이 있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새해를 말씀 안에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유튜브에서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검색하면 매일 아침 업로드되는 영상과 함께 성경통독을 할 수 있다.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조건 없는 그 사랑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준하와 나 곡

음성을 묵상하게 한다. 이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때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라고 잠잠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느껴 보면 좋겠다. "바라만 봐도 좋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거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기를, 그 사랑을 흠뻑 느껴보기를 소망한다.

찬양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는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환경도 보호하고,
용돈도 벌고!

환경도 보호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펍 먹고 알 먹는 방법이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이하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일반 국민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에서 시행한다.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하고, '녹색 생활 실천 활동'을 한 다음 포인트를 적립하면 된다. 전자영수증 발급(건당 100원), 텀블러 및 다회용컵 이용(개당 300원), 일회용컵 반환(개당 2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회당 2,000원), 다회용기 이용(회당 1,000원), 무공해차 대여(1km당 100원), 친환경제품 구매(건당 1,000원), 폐휴대폰 반납(건당 1,000원) 등을 하면 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월 말 현금화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1년 동안 최대 7만 원 적립할 수 있다.

CGN 대표 이·취임예배

이용경 장로 이임, 전진국 집사 취임



지난 9일 CGN 신임대표로 전진국 집사(좌)가 취임하고, 이용경 장로(우)가 이임했다.

CGN 신임대표로 전진국 집사가 취임하고, 이용경 장로가 이임했다. 지난 1월 9일(화)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CGN 대표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CGN 임직원, 교회 리더십, 내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CGN 대표 이·취임예배는 박종길 목사 사회, 이인용 장로(당회서기) 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이용경

장로 퇴임사, 정상건 장로(CGN 은영위원장) 격려사, 전진국 집사 취임사, 윤형주 장로 축사,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경 장로는 이임사에서 “CGN을 도와주신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뤄져 왔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일하면서 CGN과 함께한 7년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전진국 CGN 신임대표는 취임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소명을 겸손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면서 “CGN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되도록 뜨거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6개반 개강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부천 주간반, 수원 저녁반)을 개강한다. 서빙고와 부천 주간반은 2월 29일(목), 양재 주간반은 2월 27일(화), 서빙고와 양재 저녁반은 2월 24일(토), 수원 저녁반은 3월 2일(토) 개강한다. 예수제자학교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한다.

예수제자학교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

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2월 18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간반 40명(여성만), 저녁반(남녀 모두) 50명씩 모집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문의:

JDS 본부: 02-3215-3625(3534)

서빙고 주간 010-9287-8773

서빙고 저녁 010-5240-9700

양재 주간 010-4994-3602

양재 저녁 010-6201-9115

부천 주간 010-5040-3368

수원 저녁 010-2583-760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CGN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40분 방영

CGN이 새 프로그램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이하 ‘사도행전 2024’)을 선보인다. ‘사도행전 2024’는 CGN과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팀이 협력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한국 교회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위한 주일 설교본문 편성을 따라 제작한다. 한국로잔이 진행하는 ‘말씀 네트워크 운동’은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교회가 로잔대회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하는 운동이다. ‘사도

행전 2024’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 운동에 발맞춰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연합과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도록 돕는다. ‘사도행전 2024’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CGN에서 방영한다. 기독교TV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찾습니다!

〈온누리신문〉 이메일이나 전화 제보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는다. 매주 공원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 헌혈로 생명을 나누는 성도, 이주민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는 성도, 입양 및 위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는 성도 등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 소개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온누리신문〉 메일(hha0@onnuri.org)이나 전화(02-6959-0001)로 알려주면 된다. 문의: 02-6959-0001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원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비 중학생이 대상이다. 2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5천 원이다.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5천 원 할인해준다. 보호자도 등록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37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A 22기’ 단기선교사 모집

1월 19일까지 구비서류 제출

‘FA 22기’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상), 세례교인이다. 1월 19일까지 이메일(fa@tim.or.kr)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

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이다. 참가신청 양식은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FA 22기는 인도, 레바논, 캄보디아 등지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사역한다.



1월 화요성령집회 ‘Pass it on’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월 화요성령집회 ‘Pass it on’이 한창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16일 최성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

력, 십자가’ (고전 1:18~25), 23일 임영광 목사 ‘우릴 통한 하나님의 꿈, 교회’ (엡 2:11~22), 30일 최성민 목사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 부활’ (고전 15:51~58)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대학·청년 인투훈련학교

2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학·청년 인투훈련학교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7길 22다. 15일(목)과 16일(금)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2월 8일까지 홈페이지(www.into7.net)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대학·청년 인투훈련학교에서는 하신주 선교사와 김준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9291-8384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1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2호에서 열린다.

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64기 INTO 부모교실 1월 25일까지 신청

64기 INTO 부모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예비 부모가 그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www.into7.net)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64기 INTO 부모교실에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는 누구인가?’, ‘정육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주제로 하신주 선교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9291-8384

■ NGO 더멋진세상 봉사단원 간증



/ 심예찬 자매(NGO 더멋진세상 봉사위원)

그 사랑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

선교는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됐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르완다 땅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르완다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선교 사로서 나는 실패한 사람 같다고 느껴졌다.

〈이사야〉 40장 28~31절 말씀을 붙들고 다시 르완다로 갔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주실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다시금 절망하고 말았다. 몸이 피로할 때는 경련이 일어나 소염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 체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은 건강한 체력 대신 아이들을 사랑 하는 마음을 새롭게 주셨다. 이전과 다르게 큰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건강해 지거나 체력이 강해지지 않았지만, 내게 새로

운 원동력과 힘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감 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아이들을 사랑 하는 마음이 나의 모든 행동의 동력이 되었다. 여전히 몸은 힘들어도 영혼이 행복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안 아주라고 하셨다.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셨다. 아이들과 손잡고 안아주며 “사랑해”라고 외쳐주 라 하셨었다. 10대 미혼모와 함께 사는 사무엘 이라는 친구는 내게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었다. 언제나 심각하고, 의욕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어느 날, 내게 달려와 먼저 팔 벌려 안아주고, 살짝 미소를 지어줬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무엘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조차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다루셨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사랑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

■ 양재농어촌선교팀 아웃리치 간증



/ 지상목 팀장(양재농어촌선교팀)

우리의 바통을 하나님께

양재농어촌선교팀에서는 강원, 충북, 경북 지역 41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장로님과 팀원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성도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8월, 충북 보은의 적암교회를 탐방했다. 적암교회 전도사님과 가족은 2022년 부 임하셨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6개월 동안 닫혀서 폐허가 되어있었다고 한다. 낡은 교회를 보고 목사님의 자녀(고결 10세, 고은 7세)들이 무섭다고 울면서 “집에 가자고 했다”고 들었다. 너무 애처롭고 가슴 아팠다. 성도 두 명만 남아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부는 자녀들과 교회를 정리하고, 예배당을 다시 만들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젊은 교역자 가정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걸까?’ 생각이 들었다. 함께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나 지 않았다. 적암교회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지난해 양재농어촌선교팀이 아웃리치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적암교회를 아웃 리치 장소로 정해 주셨다. 곧바로 전도사님과 상의했다. 전도사님이 “마을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도집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상의하고,

역할분담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적암교회에서 ‘어린이 초청 전도집회’를 열기로 하고, 관기초등학교 전교생 33명을 초청했다. 전도사님의 아들 고결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초대했다. 전도집회 당일 어린이 24명, 부모님 5명 아웃리치 팀원 13명이 강당에 모였다. 함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에게는 선물과 음식 대접을 하면서 적암교회를 소개했다.

양재농어촌선교팀에게 깨달음을 준 일도 있었다. 전도집회에서 고결이가 경품 추첨으로 자전거를 받았다. 고결이가 그 자전거를 학교 형에게 양보했다. “자전거를 왜 형에게 주었니?”라고 물었더니 “저는 아직 필요 없어요”라고 답하는 고결이의 선한 눈망울이 아직도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 어린이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적암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 드린다. 하나님이 적암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충북 보은군 마로면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농어촌선교팀이 진심으로 섬기며 기도할 것이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송미화 성도(김포공동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온라인(Zoom) 강의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이의 온갖 병치레, 친정어머니의 입원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겨우 3주 참석할 수 있었다. 엄마인 나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깨닫고 두란노 어머니학교를 신청했다.

‘온라인 강의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현장 강의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었다. 전에 신청했던 다른 강의들도 대부분 숙제를 못 하거나 지각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강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두란노어머니 학교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해 보자고 하셨다. 고민 끝에 ‘하나님이 신청하게 하셨으니 참석도 책임지시리라’ 믿고 신청했다. 그런데 두란노어머니학교 과정과 함께 아이의 병치레가 시작됐다. 아이는 강의가 이어지는 내내 유치원에 결석하고, 앓는 날이 많았다.

다양한 강의와 경험담을 들으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와 돕는 배필로서 성경

적 여성상을 깨닫고, 회복을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변했다. 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다. 아이를 갖고자 소원할 때 드리던 간절한 기도가 떠올랐다. 뱃속에서 위험하던 아이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켜냈던 그때가 생각났다. 하나님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내, 딸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셨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며,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조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힘이 드는 순간이 오면 이 시간을 떠올릴 것이다. 나의 어려운 마음과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일을 찾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 평택온누리교회 아웃리치 간증



/ 김선종 집사(평택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주인공은 하나님

마가2순 순예배를 드리는 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농촌 미자립교회를 섬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순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싶다는 의견을 모아 아웃리치를 결정했다. 하나님 은혜로 2000선교본부에서 실시한 특별이벤트에 당첨돼 다락방 전도비용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순 아웃리치에서 다락방 아웃리치로 확장해서 15명이 지난해 11월 18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강진시온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도착하자마자 강진시온교회와 평택온누리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렸다.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강진시온교회를 둘러봤더니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팀을 나눠 울타리를 설치하고, 오래된 간판을 교체했다. 낡은 외벽도 예쁘게 색을 칠했다. 화단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주변 마을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 마을 어르신 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다락방 식구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각자

은사대로 맡은 일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 전도는 잘 못해도 운전은 자신이 있다는 순부님, 최선을 다해 강진시온교회를 섬겨주신 권사님, 아직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하지 못했지만, 초신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에 임했던 순원들까지 모두 귀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섬긴 것 같았지만, 사실 아웃리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진시온교회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웃리치를 할 수 있었다. 농촌 미자립교회를 섬기러 갔던 아웃리치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



장로칼럼

꿈의 날개를 펼쳐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 말갈계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중략)” - 박두진 시인 <해>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어둠을 뚫고 동해의 물길을 박차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격과 환희, 전율로 충만했을 것이다. 오늘도 뜨고 지는 해돋이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일출을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꿈과 희망,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이 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복(國民民福)을 이루어 가기를 모두가 소망했을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경제가 물먹은 솥처럼 가라앉아서야 되겠나.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열정, 경제제민(經世濟民)으로 일어나 느헤미아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국민 모두 일어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평안케 해야 한다. 오랫동안 잔뜩 몽그러진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 봐야지(중략)” - 정현종 시인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공은 땅에 떨어져도 곧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튀어 오른다. 튀어 오르는 공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공처럼 튀어 다시 오를 수 있다. 튀어 오르려는 공 같은 마음으로 바닥을 차고 일어나 걷고 뛰고 또 달

려가자.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면 튀어 오르는 공처럼 더 멋지게 살아날 수 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견뎌내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따라 털고 일어서자.

언제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않은 때가 있었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는 거다. 바람이 거세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녘에 동이 튼다. 정호승 시인은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했다. 어떤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동지를 짓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태풍을 이겨야 한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행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나부터 새로워져야 세상이 바뀌고, 공동체가 즐거워지고, 내 가족이 행복해진다.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오직 성령과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의 문을 열고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안이 평화로 변하고, 패배가 승리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려면 내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가듯 꿈의 날개를 활짝 펼쳐 동토를 박차고 일어나 창공을 향해 더 멋지게 날아오르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한다.

권사칼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새해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나는 손주들에게 영유아 추천 도서로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다>를 많이 읽어주었다.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었다. <너는 특별하다>는 엘리 목수 아저씨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야기다. 그들은 뭔가 잘하면 별표(★), 못하면 점표(●)를 종일 서로의 몸에 붙여주고 다닌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재주가 없어서 항상 점표를 많이 붙이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위축되고, 우울했다. 어느 날 그는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순수한 무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엘리 목수 아저씨를 찾아간다.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자존감은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보니까 책은 어른인 나를 위한 책이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음을 요즘 절실히 깨닫는다.

남들이 내게 “아무지게 보여 집안 살림도 푹 부러지게 해서 버릴 게 없겠다”고 말하면, 아나라고 말하면서도 허술한 구석이 많은 나를 그들이 알까 봐 염려했다. 또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내게 무심히 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억울함과 자책감으로 힘들어했다. 겉으로는 밝은 별표를 달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점표를 무수히 달고 다녔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나처럼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별표와 점표가 상대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붙는 거라면 나는 누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른 사람의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 자신은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남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말로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씹을 때, 말씀이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듣는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남에게 흘러가는 것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나’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들이 인정해주는 별표에서 다소 자유할 수 있었다. 내 안에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다. 나이 들수록 남들이 붙여주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붙여주는 점표가 더 많음을 느낀다.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 그분을 만나고 신뢰하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나이 드니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은 갈수록 고장 나니 인생이 허무해진다. 빨리 죽어 천국 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거짓 된 자기 평가는 실족할 뿐 아니라 남을 실족시킨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긴급한 일에, 나이 들어서 는 허망한 생각에 자신을 빼앗기기 쉽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늙는다는 것은 허무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걸사람은 낡아 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별표, 점표 없는 순수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새해에는 다음세대의 ‘짐’이 아닌 ‘힘’이 되어주고, 길을 제시하며, 영광의 복음 광채를 비추도록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꿈꾼다.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결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신앙에세이



박천중 목사
(동작공동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지나간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다. 때로 지나간 삶의 흔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기회이다. 우리 인생에 허락된 선물이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지나간 후회를 뒤로하고, 또 다른 기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 지나간 후회에 매이지 않고, 다가온 기회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

을 수 없다. 지나간 세월의 격분을 잠재우시고, 다가올 날들에 사랑의 연합을 이끌어 내신다. 결국 거듭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결단들로 그 시간을 채워간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짐과 결단을 한다. 이처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인생에 새로운 색을 입혀가는 시간들은 분명 설렘 가득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식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놓친다면 결국 우리가 품은 오늘이 기회는 훗날 후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 가운데 이미 운행하고 계셨다.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가 공간의 여백 속에서 태동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공간이 필요하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주한 현대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여백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우리 인생에는 영혼의 쉼을 얻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삶의 여백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힘써 의도적으로 비우고, 혼잡하고 시끄러운 영혼의 소리들을 낮춰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공간들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그 수면 아래는 고요하다. 생명의 기운을 얻으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곳은 바로 고요한 빈들이다. 고요함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

져 있는 보물과 같기에 요란하지 않다. 숨겨진 찬란함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필연히 고요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주의 영이 운행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결단이다.

고요한 광야에서 생명의 외침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그곳, 고요함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시끄럽고 혼잡한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분주함의 풍파에 휩쓸려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요함의 보물섬을 향해 모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곳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심포니를 들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심연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여, 다시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자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서빙고 온누리 농어촌선교팀 팀원 모집
시간: 매 주일 10시 20분~12시
장소: 지하 1층 식당 안쪽 회의룸
문의: 손현석 팀장(010-3485-5893)
*매월 연합 중보기도모임 예정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직원 모집
근무: 주5일 또는 파트타임(주 3일~4일)
업무: 총무 및 회계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1월 25일까지 kimluth@hanmail.net
문의: 010-8465-9094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기독교 단행본 편집 디자인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마감: 1월 22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양재 온누리 농어촌선교팀 팀원 모집
시간: 매 주일 오후 1시~2시
장소: 강의동 206호
문의: 지상목 팀장(010-9028-9530)
*매월 연합 중보기도모임 예정

더멋진세상 모집 공고
모집: 세네갈 PM 1명(국제기구 GGGI 농업 사업)
자격: 프로젝트 관리 경력 보유자,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및 문서 독해 능력, 컴퓨터 기본 활용 및 문서 작성 능력(MS엑셀 필수)
접수: 1월 21일까지 이메일(duna30@abetterworld.or.kr) 제출
서류: 입사지원서
문의: 070-4402-3023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illegible]

소천

1/9(화) 강남C 정병수 성도 부친상 & 정금모
1/10(수) 푸른누리 도경미 성도 부친상 & 도현섭
1/10(수) 관악금천 김인수 집사 빙모상 & 강원님
1/11(목) 고양은평 오은영 성도 모친상 & 조갑수
1/11(목) 도곡 김주연 권사 부친상 & 김성신



2024년 1월 6-7일, 13-14일 선교헌금작정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선교헌금 작성 방법

- 현장 작성 (2024년 1월 6-7일, 13-14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 온라인 작성(상시 작성 가능) :
선교헌금작성 QR코드
- 전화 작성(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성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 자동이체 (CMS) :
 -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 헌금봉투 방식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